

국학에서 국문학으로의 계승이라는 전통

-황국 일본과 모토오리 노리나가-

배관문*

ansll@hotmail.com

Contents

- I. 머리말
- II.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발견
- III. 전통의 정립 -하가 야이치
- IV. 전통의 재정립 -히사마쓰 센이치
- V. 맺음말

Abstract

「国文学」は「国学」の伝統というものを引き継いで成り立ったのだろうか。そもそも「国学」の伝統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近代的学問の一つとして「国文学」が形成され、それが「国民の学」を担う際に、国文学者は「国学」との連続性をことさら強調した。すなわち、近代以前に既にあった国民的自覚として「国学」を位置づけ、そのような「国学」を継承しているのが「国文学」であると標榜する。ここに「国学」から「国文学」へといった新たな伝統がつけられるのである。ちょうど時期を同じくして、「国学」の完成者として本居宣長の名が浮上し、国定教科書における歴史や国語の教材を通じて、やがて彼は「皇国主義者」の代表として日本の国民的存在となっていく。彼の多くの著作は、とくに戦争中において時局に合わせた形で誤読ないし曲解されたまま受容された。そして戦後を経た今になっては、本居宣長はナショナリズム批判の議論のなかで、とりわけ「日本的なもの」といった思考の原型として批判的になっている。

本稿は、近代日本において「国文学」が「国学」という伝統を背負って誕生するところに、近代的学問としての宣長「学」の発見もあり、その発見が同時にいわゆる「宣長問題」のような問題設定を可能にした背景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まずは近代日本において「国学者」本居宣長が発見されていく過程を確かめた後、「国学」から「国文学」へとこの伝統をつくった「国文学者」の代表として、芳賀矢一と久松潜一の二人をあげて論じる。芳賀矢一が宣長「学」の発見を契機に、「国学」の「学」としての定位に成功したとすれば、久松潜一は、そのような芳賀を「新国学」と定めることで、「国学」と「国文学」との関係性を再定位したといえる。こうして伝統としての「国学」が持ち込まれ、新しく誕生した「国文学」の立

* 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대학 소속) 강사, 일본 국학사상 전공.

地を急速に固めていったのである。

Key Words : 本居宣長、皇国、国学、国文学

(Motoori Norinaga, Mikuni; Empire Japan, Kokugaku; the study of ancient Japanese thought and culture, Kokubungaku; national literature)

I. 머리말

일본에서는 ‘국문학(national literature)’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일본문학(the Japanese literature)’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¹⁾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와 문학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1890년대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말로, ‘일본적’인 자각과 ‘문학적’인 자각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이지 일본의 ‘국문학(国文学)’의 성립은 에도 시대의 ‘국학(国学)’의 전통을 계승하여 구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국학’의 전통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애초에 근세 일본의 ‘국학’이 근대 일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남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일까. 근대적 학문의 하나로서 ‘국문학’이 형성되어 그것이 ‘국민문학’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국문학자들은 ‘국학’과의 연속성을 매우 강조했다. 즉 ‘국학’을 근대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국민적 자각으로 규정하고, 바로 그러한 ‘국학’을 계승하는 것이 ‘국문학’이라고 표방했다. 이것이 곧 ‘국학’에서 ‘국문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학의 완성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라는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그는 ‘황국(皇国)주의자’의 대표로서 일본의 국민적 존재가 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그가 쓴 여러 저작들이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된 채로 이용되었고, 전후가 되면 전시 체제하에서 황국주의자로 숭앙되었던 만큼 노리나가에 관한 연구는 터부시되었다. 그리고

1) ‘일본어’를 ‘국어’라고 불렀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며, 언어와 문학이 근대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는 바이다. I·코스쿠(1996), 藤井貞和(2000), 安田敏朗(2002) 등을 참조.

1990년대 이후, 학계에 내셔널리즘 비판 담론이 유행처럼 일면서 노리나가는 ‘일본’론 및 ‘일본적’인 사고의 원형으로서 현재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노리나가의 편협한 황국주의 내지 국수주의적 측면과 그의 대저 『고사기전(古事記傳)』(1764-98)에 보이는 매우 치밀한 학문적 태도는 모순된다고 보며, 위의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논해 왔었다.²⁾ 이른바 ‘노리나가 문제(宣長問題)’라고 일컬어지는 연구자들의 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근대의 본격적인 노리나가 연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무라오카 쓰네쓰구(村岡典嗣; 1884-1946)의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초판 1911, 증보판 1928)는 노리나가가 왜 학문의 방법에서는 그토록 과학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고전 연구의 성과를 비합리적으로 맹신하고 말았는가, 즉 노리나가가 근대적인 실증적 문헌학자이면서 신앙적인 황국주의자였다고 하는 모순을 ‘노리나가 문제’라고 제기했다.³⁾

본고에서는 ‘노리나가 문제’와 같은 문제설정이 어떻게 문제화 될 수 있었는가, 말하자면 그러한 논의 자체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 및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⁴⁾ 결론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문학’이 ‘국학’이라는 전통을 등에 업고 탄생할 때 근대적 학문으로서 노리나가학(宣長學)이 발견되었으며, 노리나가학의 발견이 곧 노리나가 연구이자 ‘노리나가 문제’의 발단이기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단 ‘국학’에서 ‘국문학’으로, ‘근세’에서 ‘근대’로, 무엇이 연속되었고 무엇이 단절되었는가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대답이 가능한 것은 그러한 전통을 찾고자 했던 이들이 과연 무엇을 연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

2)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노리나가의 사상적인 측면은 접어두고 『고사기』를 읽기 위해 『고사기전』의 주석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참고서로서 활용해왔다. 반면에 일본사상사 분야의 연구자들은 대개 노리나가의 연설적인 저서들만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에 대해 논해왔을 뿐, 혹은 『고사기전』을 언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총론에 해당하는 1권의 「나오비노미타마(直毘靈)」만을 인용하는 예가 대부분으로, 『고사기전』 전체의 텍스트 분석을 기초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같은 노리나가의 모순을 ‘노리나가 문제’라고 명명한 것은 일찍이 野口武彦(1976)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 용어가 대대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시 子安宣邦(1995) 이후라고 할 수 있다.

4) 줄고(2011·2)는 무라오카 쓰네쓰구의 노리나가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사학의 방법과 ‘노리나가 문제’를 다루었다.

엇을 단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이다.

II.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발견

먼저 근대 일본의 『고사기』와 『고사기전』에 관한 연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한다. 『고사기전』은 물론 『고사기』 또한 메이지 초기부터 중시되었던 서적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이지 20년대(1887-1896)까지의 『고사기』 연구는 대개 본문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⁵⁾ 노리나가가 『고사기』에 혼을 달아놓은 『정정고훈고사기(訂正古訓古事記)』(1799) 등에 의지하여 이를 나름대로 수정하는 정도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한마디로 『고사기전』을 뛰어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메이지 초기에는 예를 들면 요시오카 노리아키(吉岡徳明; 1829-98)의 『고사기전략(古事記伝略)』(1883-86)과 같은, 서명 그대로 『고사기전』의 간략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1776-1843) 학파에 가까웠던 저자가 아쓰타네의 설을 바탕으로 『고사기전』의 노리나가 설에 약간의 비평을 더하기도 했으나, 그러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히라타 학파 중에 근세에서 근대에 걸쳐 활동한 인물로 이이다 다케사토(飯田武郷; 1828-1900)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전30권에 달하는 『일본서기』의 주석인 『일본서기통석(日本書紀通釈)』(1899) 70권을 무려 48년간에 걸쳐 완성하였다. 『일본서기』의 일서(一書)와 이본(異本) 및 기존의 주석서들을 총망라한 대저였으나, 『고사기전』과 같은 독창적인 견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질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다. 또한 메이지 초기의 연구 성과의 하나로 외국인 연구자에 의해 『고사기』의 영문 번역이 나온 점을 손꼽기도 한다. 그 총론부분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1882(메이지15)년 『일본상고사평론』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여기에 당대를 대표하는 국학자들이 주 형식으로 평을 달았다.⁶⁾

5) 대표적인 것으로 敷田年治(1878) 『古事記標註』 里見義. 鈴木真年(1887) 『古事記正義』 第一卷開關章. 田中頼庸(1887) 『校訂古事記』 会通社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本居豊穎·井上頼圀·上田万年(1911) 『校定古事記』 皇典講究所に 이르기까지 본문교정은 계속되었다.

메이지 30년대(1897-1906)가 되면 비교신화학은 비롯하여 민속학 방면에서의 연구가 주로 『고사기』 상권의 신화 부분을 소재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고사기』 텍스트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역시 국문학이 완전히 성립·정착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훗날 『고사기』가 ‘일본 최고(最古)의 서적’, ‘국민의 고전(古典)’, ‘성전(聖典)’ 등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나서, 또 신화를 역사교육에 이용했던 시대를 거치고 난 이후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학 연구는 이 또한 메이지 3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학자들의 전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⁷⁾ 문학생들을 중심으로 유교집을 모아 전집을 내는 작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⁸⁾ 그렇다 치더라도 『고사기』도 『고사기전』도, 그리고 모토오리 노리나가도 이 시기까지는 여전히 그저 지식인들 사이에서 향수된 정도라고 여겨진다.

국학자의 대표자로 노리나가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아무리 빨라도 쇼와기(1926-)에 들어가고 나서, 특히 유명한 「마쓰자카의 하룻밤(松坂の一夜)」이라고 하는 노리나가 관련 일화가 『소학국어독본(小学国語読本)』의 교재로 실린 일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한다.⁹⁾ 이는 1936(쇼와11)년의 제3기 국정 국어교과서 때부터의 일이었다.¹⁰⁾

국정 역사교과서 쪽에서는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부터 노리나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1기에는 「존왕론(尊王論)」이라는 과의 국학에 대한

6) チェンバレン著・飯田永夫訳(1882)『日本上古史評論 原名英訳古事記』日本文学発行所(頭注: 田中頼庸・木村正辞・小中村清矩・黒川真頼・栗田寛・飯田武郷).

7) 그 성과는 大川茂雄・南茂樹編(1904)『国学者伝記集成』大日本図書의 상권 및 중권으로 집성되었다. 참고로 하권까지의 완결은 同(1934-35)『続編 国学者伝記集成』国本出版社.

8) 本居豊穎校訂(1901-03)『本居全集』吉川半七. 총 7권 중 4-5권이 『本居宣長全集』이며, 그 밖에 『本居春庭全集』, 『本居大平全集』, 『本居内遠全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国学院編輯部編・賀茂百樹校訂(1903-06)『賀茂真淵全集』弘文館, 国書刊行会編(1907-09)『伴信友全集』国書刊行会, 平田盛胤・三木五百枝校訂(1911-18)『平田篤胤全集』一致堂書店 등이 연이어 발행되었다.

9) 당시 시국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노리나가 연구 및 노리나가 이미지의 형성과 그 변용에 대해서는 田中康二(2009)를 참조.

10) 第三期国定国語教科書(1936)『尋常小学読本 卷十一』『第十七課 松坂の一夜』(近代編第七卷国語四). 第四期国定国語教科書(1938)『小学国語読本 卷十一』『第十一 皇国の姿』『第十二 古事記の話』『第十三 松坂の一夜』(近代編第八卷国語五). 第五期国定国語教科書(1942)『初等科国語 七』『二十 古事記』『二十一 御民われ』『本居宣長は、江戸時代の有名な学者で、古事記伝を大成して、わか国民精神の発揚につとめました』(近代編第八卷国語五).

설명 중에 게이추(契沖; 1640-1701)와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 1697-1769)의 이름만 보이다가,¹¹⁾ 이윽고 제2기부터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다.¹²⁾ 물론 국어교과서와 역사교과서의 교재 내용은 서로 연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부분이 개정에 반영되기도 했었다. 사용기간이 가장 길었던 제3기 국정 교과서(1920-21년에 출판되어 제4기 1934-35년의 출판까지 사용)는 인물별 역사 교과서의 성격이 짙었던 관계로, 이 때부터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라는 독립된 과가 만들어진다. 해당과의 소재목은 『국학의 발생』, 『노리나가의 성장과정』, 『고사기전을 짓다』, 『야마토고코로(大和心)의 노래를 읊다』, 『존왕론의 성행』 순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제6기가 되면 개정된 ‘국민학교’ 초등과의 교과구성에 따라 ‘국사’는 ‘국어’·‘수신’·‘지리’와 함께 ‘국민과’ 안에 포함된다. 1943(쇼와18)년에 출판된 『초등과국사(初等科国史)』의 제1과는 『신국(神国)』으로 시작되듯이 전시교과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여기에서도 노리나가와 관련된 기술은 크게 달라진 바 없이 게재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정 교과서의 수정 과정에서 국학 및 노리나가 관련 내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패전 직후 점령체제 하에서 일시적으로 역사 수업이 금지되고 교과서가 회수된 후에 황급히 교과서 편찬이 재개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리나가와 『고사기전』의 이름은 여전히 건재했다.¹³⁾ 요컨대 노리나가가 일본의 국민적 존재가

11) 第一期国定歴史教科書(1903) 『小学日本歴史 二』 『第十二 尊王論』 『国学とは、わが国の古史、古文を研究する学にして、さきに、徳川光圀が、僧の契沖をして、古文を研究せしめたるより、おこり、賀茂真淵など、名高き学者、あひつぎて、出でたり』p.483

인용 페이지는 海後宗臣編(1962-63)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十九 歴史二・三』 講談社에 의함. 이하 동일.

12) 第二期国定歴史教科書(1909) 『尋常小学日本歴史 卷二』 『第十 尊王論』 『真淵の門人本居宣長など、有名なる学者相ついで出で、大いに我が国体の優秀なる理由、皇室の尊嚴なる所以を明かにせり』p.544, 『国学とは国語に基づきて、我が古史・古文を研究する學問を云ふ。さきに將軍綱吉の頃、僧契沖出でて古文を研究せしより、此の學漸く起り、賀茂真淵、真淵の門人本居宣長など、有名なる学者相ついで出で、大いに我が国体の優秀なる理由、皇室の尊嚴なる所以を明かにせり』p.544.

13) 第七期国定歴史教科書(1946) 『くにのあゆみ 下』 『第八 江戸と大阪』 『三 學問の道』 『わが国の大昔の言葉や、歴史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志ぎす学者が出でました。これらの人人は、万葉集や古事記の研究を盛んに行ひ、儒教や仏教がまだつたはつてこない時代の、わが国の姿を

되어가는 과정은 단적으로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서 곡해된 이미지와 언설이 고정화되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발견되어 그의 이미지가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다면, 한편으로 근대의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노리나가의 학문, 즉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전통의 정립 -하가 아이치

노리나가의 학문은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무엇보다 문헌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이는 노리나가의 방법론은 현대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학을 서구의 문헌학에 필적하는 일본의 문헌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은 국문학자 하가 아이치(芳賀矢一; 1867-1927)였다. 일찍이 하가는 『국학사개론(国学史概論)』(1900)¹⁴⁾이라는 저서에서 “서양학자는 Philologie라고 해서 문헌을 기본으로 그 나라를 연구합니다. 일본으로 얘기하자면 국어·국문을 바탕으로 그 나라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국학자가 200년 이래 해 왔던 일은 곧 일본의 Philologie였다”(1권, p.45)¹⁵⁾라고 논한 바 있다.

『국학사개론』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그 내용은 몇몇 국학자들의 전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른바 국학의 4대인으로 일컬어지는 가다노 아즈마마로(荷田春満; 1669-1736)·가모노 마부치·모토오리 노리나가·히라타 아쓰타네를 중심으로 이들의 학문적 계통과 문하생 및 활동의 개략을 극히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

知らうとつとめました。これを国学といひます。伊勢松坂の本居宣長は、一生かかつて、古事記を研究し、古事記伝をあらはしました。p.435.

14) 1900년 8월, 국어전습소(国語伝習所)에서 의뢰 받은 하기강연회의 속기 내용을 전습소의 뜻에 따라 출판하게 된 책이다. 이 시기의 제국교육회(帝国教育会)는 한창 국어 보급을 도모하여, 국어 개량과 국어 통일 등 국어전습소의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던 때이다. 한편 당시 하가 아이치는 관명으로 독일 유학을 떠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본서의 교정 도중에 남은 작업을 지인들에게 위탁한 채 출항했고, 출판은 그 해 12월에 이루어졌다.

15) 하가 아이치 문장의 인용은 芳賀矢一選集編集委員会編(1982-92) 『芳賀矢一選集』에 의해 권수와 페이지만을 표시. 이하 동일.

에 불과했다.¹⁶⁾

1900년부터 1902년에 걸쳐 독일 유학을 경험한 하가는 귀국 후, 국학은 근대적인 학문(과학)으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본격적으로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국학이란 무엇인가(国学とは何ぞや)』(1904)에서는 “언어 즉 문학에 나타난 것을 재료로 하여 국체(国体)를 아는 것이 곧 문헌학의 목적입니다. 일본국(日本国)의 경우를 말하자면 국학의 목적이 그에 있고 학술상의 가치도 그에 있으므로, 국학도 학문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1권, p.234)라고, 국학을 문헌학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찾았다.

유명한 하가의 『일본문헌학(日本文献学)』(1928)은 실은 1907년도의 강술을 기록한 것으로, 그의 사후에 출판된 저서이다. 하가는 본서의 제1장 『일본문헌학이란 무엇인가(日本文献学とは何ぞや)』에서 국학을 ‘일본문헌학(Japanische Philologie)’이라고 정식으로 명명했다. 참고로 앞서 말한 무라오카의 노리나가 연구 또한, 이러한 하가의 국학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노리나가 학문의 본질을 문헌학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¹⁷⁾

그런데 하가 아이치 본인은 국학에서 국문학으로 계승된다고 하는 학사(学史)의 구축에 과연 얼마나 자각적이었을까.

하가의 경력을 살펴보면, 1889년에 당시의 제국대학(후의 동경대학) 문과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해서, 1892년에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 1822-1895)¹⁸⁾의 지도를 받았다. 고나카무라는 이노 히

16) 국학의 4대인에 대한 논의는 근세후기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아즈마마로·마부치·노리나가·아쓰타네로 정착된 것은 히라타 학파의 관점으로, 승려 출신인 게이추를 제외하고 사제관계를 위주로 하여 아즈마마로를 넣은 것이었다. 하가가 이들 네 명을 택한 것은 그러한 통설적인 이해에 따랐을 뿐,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 점에서 후술하는 히사마쓰 센이치는 하가와 달리, 국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게이추와 노리나가를 높이 평가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학문을 문헌학적 방법으로 재발견했기 때문이다.

17) 단 무라오카는 하가 아이치와 같은 국체론자를 대단히 경계하면서, 자신은 이들과 달리 오로지 학문적 태도만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입장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하가는 당시 국문학자 이상으로 일본주의자·일본정신론자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芳賀矢一(1907) 『国民性十論』 富山房를 비롯하여, 同(1909) 『月雪花』 文会堂, 同(1912) 『日本人 付録·国体百首』 등 일본의 국민성을 논한 저술이 다수 존재.

18) 근세말기에서 근대초기까지 활동했던 국학자. 와가쿠 강담소(和学講談所)의 강사를 거쳐, 1878년에 동경대학 강사 및 수사관(修史館) 어용과(御用掛)로 임용되어, 이듬해부터 『古事類

데노리(伊能穎則; 1805-1877)¹⁹⁾의 제자이며, 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통을 잇는 모토오리 우치토오(本居内遠; 1792-1855)²⁰⁾의 제자이기도 했다. 한편 하가 아이치의 부친 하가 마사키(芳賀真咲)는 국학자 히라타 가네타네(平田鉄胤; 1799-1880)²¹⁾와 다치바나노 아케미(橘曙覧; 1812-1868)²²⁾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하가 아이치)은 부친이 걸었던 길에 들어 스스로 메이지의 국학자가 되었다. 그럴 법한 일이다. 따라서 선생의 학통은 분명히 모토오리 국학의 계열이며 부친의 길이였다”²³⁾라고, 혹은 “아이치도 근세 국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²⁴⁾라는 식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적어도 하가의 언설에 한해서 볼 때, 그는 스스로를 국학자라기보다는 새로운 국문학을 담당해야 할 정통 국문학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은 하가뿐만 아니라, 하가와 동시대의 국문학자 우에다 가즈토시(上田万年; 1867-1937)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국어학자로 더 알려져 있지만, 어찌되었든 국학의 전통에 대해 말하는 우에다 또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절해야 할 전통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학문과는 엄격히 구별하고자 했다. 우에다의 저명한 논문집 『국어학을 위해(国語のため)』(초판 1895, 정정재판 1897)를 보면, 예를 들어 「국어연구에 대해(国語研究に就て)」(1894) 등의 논고에서 그가 서양의 언어학 연구를 기초로 일본에서의 ‘국어’의 확립을 주창할 때 국학자 게이추나 모토오리 노리나가에 대해 약간의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²⁵⁾ 이는 결코 자신들과의 연속성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학과 같은 전근대적인 학문으로

苑』 편찬사업 등에 종사.

19) 가토리 신궁(香取神宮) 내에 있던 국학교 상고관(尙古館)의 학사(學師)이자 가인(歌人).

20)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가계를 이어받은 모토오리 오오히라(本居大平)의 양자. 근대초기에 활동했던 모토오리 도요히데(本居豊穎)의 부친이기도 함.

21) 히라타 아쓰타네의 사위이자 양자. 메이지원년인 1868년에는 신기관(神祇官)의 판사(判事)로서 메이지천황의 시강(侍講) 등을 담당.

22) 가인. 에도시대의 주자학자이자 한시인으로 유명한 라이 산요(賴山陽)의 제자이자 국학자 다나카 오오히데(田中大秀)의 제자이기도 함.

23) 前掲 『芳賀矢一選集』 1卷 「解題 芳賀矢一先生の国学の源流」(藤井貞文執筆), p.329.

24) 子安宣邦監修(2001) 『日本思想史事典』 「芳賀矢一」項(加川恭子執筆), p.439.

25) 上田万年著・安田敏朗校注(2011) 『国語のため』 東洋文庫, p.36.

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자신들이 시급히 일으켜야 할 혁명적인 신학문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문학(국어학을 포함)이란 근대화된 국학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제1세대 국문학자들은 국문학을 국학의 근대적 재생으로 본다거나, 또는 그것을 근세 국학의 계통을 잇는 학문적 영위로 파악하거나 하는 인식은 미미했던 것이 아닐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학자인가 국문학자인가 하는 물음 자체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학자와 국문학자는 애초에 등가치의 항목도 이항대립적인 개념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국문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구축되어 갔을 터인데, 무엇보다 당시에는 학문과 교육이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깊이 맞물려 있었다.

하가가 국학에 관한 견해를 처음으로 개진했던 것은 『국학원잡지(国学院雜誌)』1권10호에 수록된 「당대 국학자의 임무(当代国学者の一任務)」(1895·9)²⁶⁾라는 논고였다. 청일전쟁 직후 국가주의가 고양되었던 시기에 자국 학문의 연구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국학이란 무엇인가」는 1904년 러일전쟁 때의 강연기록이다.

「국학 보급의 필요(国学普及の必要)」(1919·7)²⁷⁾를 논했던 것은 하가가 국학원(国学院)의 학장이 된 이듬해의 본 대학 강연회에서였다. 이 때의 하가는 1916년부터 이루어진 미국 및 유럽대륙 시찰에서 귀국한 직후로, 윌슨의 평화론이나 구미권의 민주주의도 실상은 모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다시 말해 그 모방에만 급급하며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일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920년, 하가의 학장 재임 중에 국학원은 대학령의 사립대학 인가를 받아서 국학원대학(国学院大学)이 되었다. 그리고 이 해에 하가가 홍도회(弘道會) 하기강습 과외강연에서 발표한 테마는 「고사기 일본서기를 읽고(記紀二典を讀みて)」(1920·11)였다. 국학원대학의 사명에도 부합하는 신화교육의 중

26) 前掲 『芳賀矢一選集』 1卷, pp.275-280.

27) 前掲 『芳賀矢一選集』 1卷, pp.263-274.

요성을 역설한 내용이다.

이 시기의 하기는 “우리 역사를 모르는 학자의 잘못”(6권, p.268)이라고 하여, 국체를 안중에 두지 않고 황실에 불손한 언론을 조장하는 공산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종교가는 걸핏하면 초국가라는 것을 말하지만, 조금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초국가라는 것 따위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를 떠나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이 빛나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역사를 가진 일본국, 고사기·일본서기와 같은 고전을 갖고 있는 일본이, 유대인과 같이 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 없는 이상,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다.(6권, p.271)

국체론·일본정신론의 전형적인 언설로, 황실을 존경하는 국민의 국가적 자각이 이미 고대의 신화 속에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하기는 여기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일본의 순(純)신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화는 그저 ‘이야기’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 하기의 입장이었다.

건국 시절부터 나라가 만들어져 있다. 국토가 생김과 동시에 그 국토의 군주가 생겨났다. 군신의 구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국민 사상이 나타나 그 신화를 형성한 것이다. (중략) 신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할 필요가 없다. 신화를 있게 한 그 정신이 곧 선조들의 정신이다. 황실과 국토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조들이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화가 역사가 되어 우리나라의 고사기·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온 것이다.(6권, p.263)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하기는 『고사기』의 기술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믿으면 된다고 하는 노리나가의 태도가 합리적이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의 상식으로는 통용되기 힘들다고 비판한다. 노리나가의 시대에는 한학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순수한 문헌학자’의 입장에서 일본의 고전을 믿고 고대의 정신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런 식의 설명은 아이들조차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도 일단은 신화를 하나의 ‘이야기’로서 가르치고 나서 점차 커가면서 설명을 덧붙여 납득시키면 된다는 것이 하가가 주장하는 신

화교육의 방법이였다.

이윽고 다이쇼기가 끝나고 쇼와기에 접어든 1927(쇼와2)년, 하가는 메이지·다이쇼기의 국문학자로서 생을 마감하였다. 여론에서는 국체논쟁이 거둬되었고 군부의 독점적 세력 행사가 강해지면서 시국은 점차 파시즘 체제로 치닫고 있었다.

IV. 전통의 재정립 -히사마쓰 센이치

전통이 확실하게 전통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였다고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존재는 하가 아이치의 제자였던 제2세대 국문학자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潜一; 1894-1976)이다.

예를 들면 히사마쓰는 하가의 1907년의 저서인 『국민성십론(国民性十論)』을 본인의 주와 해설을 덧붙여 1930년대에 재간하는 작업을 한다. 그 해설을 보면 “근래에 일본적 자각이 생겨나 일본정신의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책은 더욱 새로운 의의를 갖고 재흥했다고 할 수 있다”²⁸⁾고, 히사마쓰가 당시 쇼와의 시대상황 속에 하가의 논고를 다시금 불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사마쓰의 『은뢰초(恩頼抄)-국문학잡기(国文学雑記)』(1943) 등을 보아도, 그는 하가를 ‘신국학의 창조’와 ‘일본학의 건설’을 염원했던 국문학의 선구자적 존재로 떠받들고 있다. 물론 그의 스승이 하가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근세 국학에서 메이지의 새로운 국어학, 국문학이 생겨난 것은 우에다 선생과 하가 선생에 의해서이다. 메이지 23년에 우에다 선생의 국문학, 하가 선생 등의 국문학독본, 미카미 선생 등의 일본문학사 등이 세상에 나왔을 무렵을 경계로 메이지의 국문학이 탄생한 것인데, 동시에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 등이 국학정신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학문적인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²⁹⁾

여기서 히사마쓰가 국문학 탄생의 시점으로 판단한 1890(메이지23)년은 확

28) 芳賀矢一著·久松潜一校注(1938) 『国民性十論』 富山房百科文庫 『解説』, p.4.

29) 久松潜一(1969) 『久松潜一著作集別巻 国文学徒の思ひ出』 至文堂, p.176.

실히 일본의 국문학사를 논할 때 기념비적인 해였다.³⁰⁾ 그의 지적대로, 이 해에 우에다와 하가의 국문학 저작을 비롯하여, 일본문학사와 일본문학전집 등이 대거 출판되었다.³¹⁾ 주목하고 싶은 것은 히사마쓰가 위와 같이 국문학의 발전사를 논할 때 근세 국학과와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학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과학적 정신을 국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하가의 특징이자 의의라고 보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신국학(新国学)이라는 명칭에는 구국학(旧国学)으로 총칭되는 전통적인 연구에 대해 그것을 일체 거부하는 일종의 단절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엄밀하게는 하가 이전의 메이지 시기의 다른 국학자들과 하가를 명확하게 구분 짓고자 하는 의식의 표명이다.

예를 들면 히사마쓰는 메이지 초기의 국문학자로 고나카무라 기요노리와 기무라 마사코토(木村正辞; 1817-1913)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하곤 했는데, 이들이 특히 대학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국문학 성립의 모태라고 평한 것이었다.³²⁾

이들의 뒤를 이은 메이지 중기의 국문학자로서 하가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오치아이 나옴미(落合直文; 1861-1903)와 이케베 요시카타(池辺義象;

30) 제국대학의 문과대학에 ‘국문학과’란 이름의 학과가 설치된 것은 그 전년도인 1889년의 일이었다. 교육칙어가 발표된 것이 1890년 10월, 이어 11월에는 제국회의가 소집되었다. 같은 11월에 국학원이 설립되었는데, 메이지유신 이후 외국학문의 유입에만 힘을 쏟았던 데에 대한 반발로서 국가를 위해 자국의 학문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品田悦一(2001)가 ‘국민가집(国民歌集)’으로서의 『만엽집(万葉集)』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시기를 1890년 전후라고 지적한 것 또한 일리가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가 ‘일본의 신화’로서 ‘일본정신의 원류’로서 부각되는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문학의 성립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고전’이 실제로 국민교육에 반영되어 일반의 인식에도 급속히 침투되어 갔음에 틀림없다.

31) 上田万年(1890·5) 『国文学』 双二館. 芳賀矢一·立花鉄三郎(1890·4) 『国文学読本』 富山房. 三上参次·高津鎌三郎(1890·10) 『日本文学史 上·下』 金港堂. 落合直文·小中村義象·萩野由之(1890-92) 『日本文学全集』 24册、博文館.

32) 히사마쓰는 고나카무라에 대해서는 ‘문학사가’라고 명명한 반면, 주로 『만엽집』의 주석 작업에 주력했던 기무라에 대해서는 ‘고전주석가’라고 했다. 종래의 주석적 연구에서 비로소 문학사적 연구로 중심이 바뀌어간다는 것이 히사마쓰의 기본적 입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기무라 보다는 고나카무라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久松潜一(1969) 『久松潜一著作集10卷 日本文学評論史 理念·表現論篇』 至文堂. 第二篇第四章『文学史論』、pp.381-440. 補篇『明治の国文学者-小中村清矩と木村正辞』、pp.444-459.

1861-1923) 등을 들 수 있다.

오치아이의 경우는 당시의 시대적 요청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일본주의의 유행에 대해서도 이미 그 쇠퇴를 우려할 정도로 극단적인 국채론자였다. 그가 나라(奈良)시대의 문학과 메이지 현재의 문학 상황을 유사하다고 지적한 것도 성쇠의 이치에 따라 곧 다가올 퇴행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그도 역시 일본문학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국학의 4대인 아즈마마로·마부치·노리나가·아쓰타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보고 단지 고학자(古学者)라 할 뿐, 어째서 이 사람들이 오늘의 문명의 단서를 만들었음을 알지 못하는가.”³³⁾라고 한탄하는 부분 등에는 국문학의 전통으로서의 국학을 중시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히사마쓰가 오치아이 등에 대해 언급할 때는 계속 하가와 비교하면서 ‘문학사적 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따름이다. 히사마쓰가 이렇게 어디까지나 하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국학이라는 전통을 다시 전통화하는 작업은 이후 전시체제하의 사상통제, 학문 총동원체제 때까지 착착 진행되어 간다. 그리고 그러한 시국에 편승하여 히사마쓰는 국학 연구에 매진한 국문학자이면서 동시에 노골적인 일본정신론자로서 활약하게 된다.

히사마쓰의 저서 중에서 1926년부터 1934년까지 발표했던 논문들이 수록된 『상대 민족문학과 그 학사(上代民族文学とその学史)』(1934)가 있다. 이 논문집은 제1편 「야마토 시대 문학 개설」, 제2편 「상대 민족문학」, 제3편 「상대 민족문학 연구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2편 제1장 「고사기와 일본정신」만은 1931년 8월에 새로 쓴 부분이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고사기와 일본정신」이라는 본 장의 제목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서 그는 “일본정신이 일본의 고전으로서의 『고사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p.77)라고 하면서, 『고사기』를 “일본의 성서(聖書)”로 규정하였다. 일례를 들자면 『고사기』의 ‘마코토(まこと)’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신(敬神)·충군(忠君)·애국(愛國)’의 일본정신을 논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제3편 상대 민족문학 연구사」의 제1장은 「국학의 정신」으로, 각 절

33) 落合直文他(1968) 『明治文学全集44 落合直文・上田万年・芳賀矢一・藤岡作太郎集』筑摩書房. 『日本文学の必要』(1889), p.5. 以下, 『日本主義の未来』(1889), 『奈良朝の文学』(1889).

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국학의 의미
- 2 국학의 전개
- 3 국학의 정신
 - (a 복고적 정신, b 과학적 정신, c 국가적 정신, d 개인적 정신과 인간성)
- 4 신국학의 창조

여기서 히사마쓰는 단적으로 ‘국학’을 “국가의 학문(国の學問)”이라고 정의하고, “국학은 우리나라 즉 일본을 알고자 하는 학문인데, 그 근거에는 국가에 대한 강한 애정이 존재한다”(p.216)고 부연한다. 그리고 “문헌적·과학적 방법론으로 순(純)일본을 알고자 하는 것이 국학이다”(p.245)라고도 말한다.

위의 인용 4절에 해당하는 『신국학의 창조』에서는 “문헌의 정밀한 과학적 고찰”(p.246)을 국학의 뛰어난 학문적 의의 및 학문 연구의 방법론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학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리나가가 『고사기』의 기술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여러 방면의 고찰에 의한 판단과 해석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신앙으로서 그러하다는 측면과 별개로, 엄밀한 학문적 태도로서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p.247)고 지적한다. 또한 국학의 학문적 연구대상의 미분화를 지적하면서 본문비평사·주석사·어학사·문학비평사 등의 다양한 고찰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전체를 통해 일본을 알고자 하는 정신,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을 알고자 하는 정신은 확고하게 존재해야 한다”(p.248)고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히사마쓰의 『국학(国学)-그 성립과 국문학과의 관계(その成立と国文学との關係)』(1941)에서 논하고 있는 국학의 의의와 성립 및 경향 등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취지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제 3장 『국학과 국문학』이다.

- | | |
|-----------------|----------------|
| 1 현대와 국학 | 2 국학·문예학·일본학 |
| 3 일본학과 국문학 | 4 국문학과 신도(神道) |
| 5 국문학에서의 국학의 지향 | 6 국학의 부흥과 일본정신 |

위에 인용한 각 절의 소재목만 보더라도 이 장의 방향성을 짐작하는 데에는 충분할 것이다. 요컨대 새롭게 탄생한 국문학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으로서의 국학을 부단히 끌어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만들어진 전통 위에 또다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V. 맺음말

국학에서 국문학으로의 계승을 전제로 근대국학의 역사적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藤田大成(2007)는 근세의 전통적인 국학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근대국학을 구상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나카무라 기요노리와 같은 국학자의 존재를 예로 들어 주장하면서, 근대국학의 성격을 ‘종합성’·‘고증성’·‘국가성’·‘실용성’·‘종교성’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³⁴⁾ 즉 이러한 근대국학의 다양한 측면을 기반으로 국문학도 탄생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국학자의 일부가 그대로 국문학자가 되었다거나, 국학의 흐름이 자연발생적으로 국문학으로 이어진다는 발상은 연속사관 내지 발전사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 든 것과 같은 근대국학의 특징이야말로 메이지의 국학자 혹은 국문학자들이 국학에서 받아들여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전통으로 주창했던 것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학의 단절해야 할 전통은 무엇이었을까. 다음은 전후 일본에 재생산된 히사마쓰 쉐이치의 『국문학통론(国文学通論)』(1968)의 일절이다.³⁵⁾ 히사마쓰는 『연구사의 방법』 중 근세를 언급한 부분에서, “일본문학의 목표와 국학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생겼다. 그리하여 국학의 목표로서의 고도(古道)와 일본문학의 목표로서의 미(美)는 모순되는 점도 생겼다. (중략) 이것은 일본문학 연구가 국학으로서 행해졌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다”(p.380)라고

34) 藤田大成(2007) 『近代国学の研究』 弘文堂、pp.461-493.

35) 『국문학통론』의 초판은 1944년으로, 수록 논문은 대개 1930년대에 발표된 것들이다. 여기서는 전후의 증보개정판에 해당하는 『久松潜一著作集1卷 国文学 方法と対象』에서 인용하였다. 히사마쓰의 언설이 본질적으로는 전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安田敏朗(2006)가 자세히 밝히고 있는 바이다.

하였다. 다행히도 근대에 들어와 일본문학 연구가 국문학으로서 행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하가의 노력과 공적이 재삼 강조된다.

다만 이런 과정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국문학이 근세의 국학적 성격을 많이 갖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방법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 점에 있어서 하가 박사는 독일에 유학하여, 베크(=아우구스트 베크; 1785-1867. 고전학자)나 엘체(=프리드리히 칼 엘체; 1821-1889. 영어학자)의 Philologie가 고전문헌에 의해 고대문화를 밝힌다고 하는 학문의 방법과 내용이 국학의 방법이나 내용과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학을 일본문헌학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국학의 재음미가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 국문학의 성격도 분명해졌다.(p.381)

지금까지 논해 왔듯이 히사마쓰는 메이지 초기의 국문학자들이 국학의 문제점과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점, 그것을 방법적으로 극복한 것이 하가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문학통론』의 서설은 국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시작된다.

국문학이라는 것은 국문학사라고 할 때의 국문학과 같이 일본문학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국문학으로서의 일본문학을 연구대상으로서 취급하는 학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국어학이 자국어로서의 일본어를 연구대상으로서 취급하는 학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국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문의 학이라는 의미가 된다.(p.15)

‘국문학’이란 ‘국+문학’인가, 아니면 ‘국문+학’인가. 실은 국문학의 탄생과 동시에, 이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鈴木暢幸(1901)는 일찍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금도 이따금 그런 일이 있듯이, 국학 혹은 고전학이 국문학으로 불리는 오진은 이미 그 원인이 10년 전에 있다. 메이지 23, 4년경에 고전 국학 등의 연구가 어지럽게 일어나자, (중략) 고나카무라씨 등은 동지들과 함께 고전의 학을 총칭하여 국문학이라 하였다.(p.21)

내가 말하는 국문학이란 문학이라는 보통명사에 국이라는 형용사가 결합된 것이고, 고나카무라씨 등의 국문학이라는 명사는 국문이라는 보통명사에 학이라는 명사가 결합한 것이 되는 것인가.(p.23)

서양에서 들어온 문학 개념에 따라 단지 일본문학의 의미로 사용하는 ‘국문학’과, 국학에서 비롯된 ‘국문의 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며 진정한 문학연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것이 혼동되는 상황은 전후가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나카무라와 같이 여전히 ‘국문의 학’을 내세우는 히사마쓰의 언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이해가 기묘하게 맞물려가며 의도적으로 합쳐져 가는 과정이 곧 국문학의 탄생이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히사마쓰가 국학자 노리나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주로 히사마쓰의 전거서 『국학-그 성립과 국문학과의 관계』 제1장 8절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국학의 형성」 부분이다.

히사마쓰는 노리나가의 많은 고전 연구 중에서도 『고사기』와 『겐지 이야기(源氏物語)』를 2대 작품으로 꼽았는데, 이 두 고전작품에서 각각 ‘간나가라노미치(神ながらの道)’와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라는 일본정신을 발견했다는 점을 노리나가의 중요한 공적으로 보았다. 히사마쓰의 견해에 의하면, 이는 신의 섭리에 따르는 태도와 인간의 진실에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노리나가에 의하면 (중략) 인간도 신이 낳은 히토구사(人草)·아오히토구사(靑人草)로 풀이되듯이, 신에게 순응하는 인간으로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며, 신에 의해 시작된 국가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략) 신과 인간과의 일체의 관계에서 ‘간나가라노미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도리로서의 ‘모노노아와레’도 ‘간나가라노미치’에 포함되는 것이다.(p.131)

이른바 노리나가의 고도관(古道觀)과 문학관(文學觀)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 히사마쓰는 “문학과 고도의 관계상에 노리나가가 통일을 추

구하면서도 끝내 충분히 통일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p.133)고 말하며, 결국에는 노리나가의 학문의 태도를 문제 삼아 “문학도 고도에 귀일하는 학문으로 생각했다. (중략) 즉 일본적 입장에 선 학문이라는 뜻이 한편에 있었다”(p.134)고 결론짓는다. 위의 인용에서 히사마쓰가 ‘국민’이나 ‘일본’ 등의 개념을 노리나가의 사고에 결부시켜 소급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금방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노리나가의 고전 해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비단 히사마쓰 뿐만은 아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언급했던 ‘노리나가 문제’이다. 노리나가 연구자의 거의 대다수는 노리나가가 말하는 고도론(古道論)과 가도론(歌道論)의 관계, 상대주의(上代主義)와 중고주의(中古主義)의 관계,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사상과 학문 사이에서 모순과 같은 것을 느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쿠니(皇国)’라는 말 자체가 『고사기전』의 집필과정에서 자각된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면,³⁶⁾ 노리나가의 황국주의(皇國主義)라는 사상적 측면과 실증적으로 보이는 학문의 태도라는 측면을 별개로 취급하는 문제 설정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노리나가의 사상을 ‘국학’적 사고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비록 그것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노리나가의 방법을 근대 학문의 전통으로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이 아닐까. ‘일본’론 및 ‘일본적’인 것을 논할 때마다 끊임없이 노리나가의 언설이 재생되는 구조는 ‘국학’에서 ‘국문학’으로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왔던 기존의 틀과 상통하는 문제로 보인다. 금후 지속적으로 ‘국학’과 ‘국문학’의 관계에 대한 재고를 목표로 하는 본고의 방향은 근대 학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이·욘스크(1996) 『国語という思想-近代日本の言語認識』 岩波書店、pp.96-160.
 上田万年著·安田敏朗校注(2011) 『国語のため』 東洋文庫、pp.9-37.
 海後宗臣編(1962-63)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十九 歴史二・三』 講談社.

36) 이에 대해서는 줄고(2006·11)를 참조.

- 落合直文他(1968)『明治文学全集44 落合直文・上田万年・芳賀矢一・藤岡作太郎集』筑摩書房.
- 子安宣邦(1995)『「宣長問題」とは何か』青土社(ちくま学芸文庫、2000).
- 品田悦一(2001)『万葉集の発明-国民国家と文化装置としての古典』新曜社、pp.124-150.
- 鈴木暢幸(1901)『国文学の研究を論ず』『帝国文学』7・2号、pp.21-40.
- 田中康二(2009)『本居宣長の東亞戦争』ペリかん社.
- 野口武彦(1986)『本居宣長の古道論と治道論』同『宣長選集』筑摩書房.
- 芳賀矢一選集編集委員会編(1982-92)『芳賀矢一選集』国学院大学.
- 久松潜一(1969)『久松潜一著作集別巻 国文学徒の思ひ出』至文堂.
- _____ (1969)『久松潜一著作集10巻 日本文学評論史 理念・表現論篇』至文堂.
- _____ (1968)『久松潜一著作集1巻 国文学 方法と対象』至文堂.
- _____ (1941)『国学-その成立と国文学との関係』文部省.
- _____ (1934)『上代民族文学とその学史』大明堂.
- 藤井貞和(2000)『国文学の誕生』三元社、pp.7-39.
- 藤田大誠(2007)『近代国学の研究』弘文堂、pp.461-493.
- 裴寛紋(2011・2)『日本思想史学の方法と「宣長問題」』『日語日文学研究』第76輯2巻、韓国日語日文学会、pp.271-291.
- _____ (2006・11)『「皇国」の物語のための「外国」-「古事記伝」が作った「古事記」』『思想』991号、岩波書店、pp.83-85.
- 村岡典嗣(1911)『本居宣長』警醒社(増補版 岩波書店、1928).
- 安田敏朗(2006)『「国語」の近代史』中央公論新社、pp.133-190.
- _____ (2002)『国文学の時空-久松潜一と日本文化論』三元社、pp.122-152.

❖ 투고일 : 2011.06.30

❖ 심사일 : 2011.07.26

❖ 심사완료일 : 2011.07.28